

“고객만족, 나부터 지금부터”

국민카드뉴스



2000 6

시의 뜨락 국민카드 뉴스 기업설명회를 마치며 반갑습니다 특별기획| 신용카드 연체비용 0%대 진입과 하반기 연체관리 방향 신고합니다| 29기 신입사원 지식경영| DEEP CHANGE! OR SLOW DEATH 행복하우스| 내 남편의 별명은 어부 내생의 에너지| 사랑은 결심하는 것! 해피웨딩| 3년차를 극복한 우리사랑 차한잔의 사색| 말하기의 중요함



(재)한국여성기금

박영숙 위원장



2천년은 여성의 해, 환경의 해이고 우리사회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기금위원회를 결성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20세기는 강자의 논리에 의한 세계였습니다. 갈등과 지배, 피지배가 공존했구요. 신 세기는 공존 공영의 세계가 되라는 의미에서 환경의 해, 여성의 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은 여성의 세계, 환경의 세계로 만드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핀란드에 여성대통령이 최초로 나왔고 일본에도 여성지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불란서는 법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50:50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우리나라도 여성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에서 참여의사와 진출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정보화 시대가 여성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그 모든것이 그냥 이루어지는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들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딸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기금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또 현재의 모금운동 결과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각 나라의 여성들의 지위를 평가하는 국제기관이 있는데 국민들의 여려수준을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143개 나라중 3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고위공직, 사회 진출 참여율은 102개 나라중 73위입니다. 현재는 이 순위도 유지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더 अच्छ은 소식은 스위스의 한 단체에서 평가한 것 중엔

40여개 나라중 우리 여성들의 위치가 40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질은 점점 더 보장되고 선진국이나 다름없는데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여성기금이 모아지면 400여개 단체가 각종 여성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나 남녀평등을 찾기 위해서나 국제적인 리더십 훈련을 위해서나 아니면 불우한 저소득 여성들의 긴급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서 도와주려 합니다. 이 기금은 우리 재단이 직접 행사를 열어 기부하는것이 아니고 400여개 단체들이 각 프로젝트를 맡아서 활동하면 기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여성기금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낭비없이 해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팀원 모두 다짐했습니다. 또 여성단체들도 모여서 100만인 회원모집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사업상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이면서도 일반 타카드사와는 달리 공익성을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엔 한국여성기금이 국민카드와 제휴한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카드 회사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얼마전 영국 출장을 다녀와서 느낀것은 그 나라의 각 기업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성의껏 모아 기부를 하는 제도가 정착되었고 개안들도 뜻모아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낸다든가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기금 단체도 수백개가 있구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민카드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리라 기대합니다. 또 국민카드가 이 기금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앞으로 우리 한국여성기금이 날이 발전하고 또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